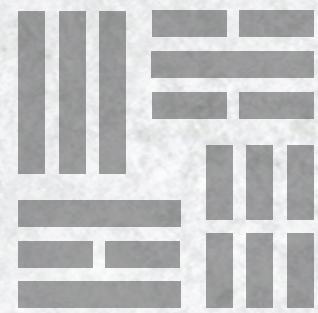


● 1910.03.26 ●

안중근 의사 순국일

Card news



PROJECT OVERVIEW

안중근 의사의 순국을 추모하며,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혹독한 환경과 불공정한 재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와 조국을 위해 싸운 그의 용기와 신념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아직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일 역시, 그의 후손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도리임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GRAPHIC DESIGN

● 1910.03.26 ●

안중근 의사 순국일

기획/디자인: 이한을

1909년 만주 하얼빈에 올려퍼진 대한 만세
“고레아 우라! 고레아 우라! 고레아 우라!”

을사늑약을 강행하고 조선을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
그의 행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위기백과, 안중근 의사기념관

안중근 의사의 웃음을 향한 일본의 불공정한 재판

-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제에 넘겨진 재판관
- 변호인 선임할 권리 무시
- 공개재판 당일, 돌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
- 판사와 검사, 변호인까지 일본인으로 진행

안중근 의사의 웃음은 세계에 올려퍼졌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제의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불공정 재판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일제에 대항하였으나,
첫 번째 재판 일주일 뒤, 결국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

사형 선고 후에도, 안중근 의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동양평화론]을 짜밀하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번에는 총이 아닌 펜으로 또 한 번 싸운 안중근 의사.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써내려가던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10년 03월 26일, 일제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위기백과, 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чин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총후여 반색을 부를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아직도 조국의 땅을 밟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가묘만이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국가유산청

안중근 의사의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의 용기와 신념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유산이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의 마지막 길을 찾는 것 또한 우리의 뜻이다.

안중근 의사기념관